

## 특특뉴스

### 광주상의, 회원기업 대상 실무강좌

광주상공회의소는 4일과 23일, 30일 세 차례에 걸쳐 7층 대회의실에서 회원기업 대상 6월 실무강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전 부가세 신고 절차 및 핵심 내용에 대한 강의 뿐만 아니라, 최근 변화하는 노동법률 대응, 주요 지출증빙 관리규정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 인사·세무·회계 부서 업무 담당자들의 실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4일 실시되는 교육과정은 세무·회계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실무 강의'가 마련된다. 이어 23일 개최되는 인사·노동강좌는 노동법 기본사항, 임금계산과 관리방법 등을 중심으로 4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30일에는 지출증빙 실무를 주제로 하는 강의가 개최된다. 일반경비 지출시 증빙관리 방안, 원천징수 사례 해설 등의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

이연수 기자

## 그래픽 경제

### 은행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비중 추이



### 은행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비중 89.5%

2일 한에 따르면 지난 4월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 대출 비중(신규취급액 기준)은 89.5%로 집계됐다.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주택담보대출 고정형 금리는 지난달 30일 기준 연 3.370~5.516%로 집계됐다. 변동금리(연 3.880~5.532%)보다 상단이 0.016%p, 하단이 0.510%p 낮다.

# 한전-에너지 기관들, 데이터안심구역 활용 맞손

## AI개발 핵심 데이터 제공 협력 에너지 통합 데이터 제작 협업

한국전력이 4개 주요 에너지기관과 협력해 민간 에너지분야의 신서비스 개발·창업 활성화·새로운 에너지 산업 생태계 확산에 나선다.

한전은 최근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력거래소와 '에너지유관기관 데이터안심구역 공동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데이터안심구역은 미개방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한전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지난 2023년 공기업 최초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정을 받아 서울 한전아트센터와 나주 한전 본사 등 2개 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번 협약은 한전이 운영 중인 '데이터안심구역'을 중심으로 5개 에너지 공공기관과의 데이터 기반 협력을 제도화하고 AI 개발에 필요한 핵심 데이터를 국민에게 안전하게 제공하기 위한 협력 의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데이터안심구역 공동활용 등 개방 인프라 공유 △에너지 통합 데이터 제작

## '데이터안심구역 공동활용' MOU 체결식

| 일시 | 2025. 5. 30(금) | 장소 | 한전아트센터



한전이 최근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력거래소와 '에너지유관기관 데이터안심구역 공동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전 제공

등 협업데이터 생산 △데이터 표준·품질 관리 등 기술 교류 △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개방 업무 협력 등 데이터 업무 전 분야다.

협약을 통해 오는 8월부터는 에너지기관의 미개방 데이터를 보안이 확보된 '데이터 안심구역' 내에서 분석·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민간 에너지분야 신서비스 개발, 창업 활성화 등 혁신의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한전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을 바탕으로 이날 협약에 참여한 기관을 포함한 모든 에너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통합 에너지 데이터안심구역(가칭)'을 조성하여 미개방 데이

터 제공 및 활용 촉진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문일주 한전 기술혁신본부장은 "에너지 분야 AI 대전환에 발맞춰 AI의 연료가 되는 데이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에너지데이터를 활용한 신서비스 개발이 더욱 활발히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승현 기자

# 광주·전남 금융기관 여·수신 증가폭 확대

## 한국은행 지역본부, 1분기 여·수신 동향 분석

### 예금은행 수신 증가 전환·신탁회사 ↑ 상호금융·새마을금고 여신 증가폭 ↓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의 1분기 여·수신이 전분기 대비 증가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2일 제공한 2025년 1분기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지역 예금은행의 수신은 전분기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했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은 신탁회사를 중심으로 늘어 증가폭이 확대됐다.

여신은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증가폭이 축소되는 가운데 예금은행이 기업대출과 가계대출 모두 늘어 증가로 전환했다.

금융기관이 고객으로부터 예금을 유치하는 영업활동은 수신, 기업채 등에 대출·보증·투자 등 신용을 제공하는 것은 여신이라고 부른다.

지역 예금은행의 수신은 전분기 대비(-599억원) → +9,553억원) 증가세로 전환했다. 예금(+4,654억원) → +3,502억원)은 보통예

금과 기업자유예금의 감소 전환 등의 영향으로 증가폭이 축소됐다.

시장성 수신(-5,253억원) → +6,052억원)은 양도성예금증서 등이 늘어난 데 힘입어 증가 전환했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수신은 전분기 대비 증가폭(+1조6,563억원) → +2조8,636억원)이 확대됐다. 신탁회사(-811억원) → +1조2,167억원)가 증가 전환했으며, 자산운용회사(+233억원) → +3,083억원)의 증가폭이 확대됐다.

같은 기간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 중 예금은행 여신은 전분기 대비 증가(-5,419억원) → +1조1,048억원) 전환했다. 구체적으로 대기업 대출이 증가 전환했고, 중

소기업 대출 증가 폭이 커지면서 기업대출(+3,321억원) → +8,031억원) 증가폭이 확대됐다. 가계대출(+1,609억원) → +3,015억원)도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늘어 증가폭이 늘어났다.

반면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여신은 전분기 대비 증가폭이 축소(+6,430억원) → +2,205억원) 됐다. 금융기관별로는 상호금융(+5,483억원) → +2,083억원)의 증가폭이 축소됐으며, 새마을금고(+1,106억원) → -832억원)도 감소 전환됐다. 차입 주체별로는 가계대출(+1,416억원) → -2,660억원)이 감소 전환한 가운데 기업대출(+4,923억원) → +4,121억원)의 증가세가 둔화됐다.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의 1분기 여신 증가폭 축소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인한 적자폭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연수 기자

도로교통안전시설물 제조업

## 주식회사 폴테크

도로 안전표지판지주, 신호등주, CCTV지주, 가로등주, 종합플, 태양광 가로등주 등 도로교통지주 분야를 개발, 설계하여 나라장터, 쇼핑몰 제품등록, 정부 R&D를 통하여 친환경 에너지와 스마트시스템을 교통지주와 결합하는 아이디어 제품 개발하고 있습니다.

도로안전표지판 지주

신호등주

폴테크 외부 전경

폴테크 내부 전경

주식회사 폴테크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나불로 163 (리팩토리 대불) 공장동 106호  
Tel. 061) 464-8992 Fax. 061) 464-8993